

‘성형 후 거위 된 오리’中 기상천외 사기 행각

출처 : 스포츠 서울

Product



▲ 이마에 오리 심장을 넣어 거위처럼 만든 오리

일부 비양심 업체에서 성형을 거쳐 오리를 거위로 만들어 팔고 있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차이신왕은 광둥(廣東)성 일부 업자들이 성형을 통해 거위가 된 오리를 구이로 판매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업자들은 거위가 오리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려 가격 차액을 챙기기 위해 가공을 거쳐 오리를 거위로 보이도록 만든 후 구워 팔고 있다. 털이 뽑힌 채 성형을 거쳐 거위로 다시 태어난 오리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구별이 힘들 정도로 감쪽 같다.

차이신왕은 관련 전문가가 오리를 거위로 만드는 과정을 사진에 담아 공개했다. 거위의 특징인 이마의 혹과 오리보다 짧은 주둥이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오리를 거위로 만드는 방법은 생각 외로 간단하다. 오리나 닭의 심장으로 거위 혹 모양을 만들어 이마에 넣고 불에 달군 철로 뽕족한 오

리의 주둥이를 거위 주둥이 모양처럼 다듬는다. 오리의 목구멍에 칼집을 내고 피부와 살을 분리해 다듬어놓은 심장을 이마까지 밀어넣는 방식이다.

광저우(廣州)에서 취재진과 만난 이 전문가는 직접 오리를 거위처럼 보이도록 만들면서 “모든 오리가 거위가 될 수는 없다. 머리가 크고 살이 썩 흰 오리만 가능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중국 네티즌들은 또 다른 가짜 식품 소식에 공분하고 있다. “중국인은 조작을 제일 잘 한다” “인재가 따로 없다” “저 지역(광둥성)은 참 신기한 일도 많다” “도대체 이 나라에 진짜가 있기는 한가” 등 비양심 업자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Community

네팔, 카트만두 포함 27개 구역 AI ‘고위험 지역’ 지정

출처 : 뉴시스

네팔 수의국(DAH)이 지난 4월 1일 수도 카트만두를 포함해 27개 구역을 조류 인플루엔자(AI)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람 크리쉬나 카티와다 DAH 국장은 이날 “이들 고위험 지역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울들어 지금까지 네팔에 모두 23차례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4월 2일 리퍼블리카지 보도에 따르면 네팔은 울들어 지금까지 6만7507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고 2만3088개의 계란과 148.5kg의 닭 고기 및

| 해외소식 |

3413kg의 닭 사료를 폐기했다. 카티와다 국장은 또 전국 75개 구역 가운데 18개 구역은 중간위험 지역으로, 26개 구역은 저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DAH는 닭고기와 계란을 충분히 익혀서 먹으면 AI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中 유명업체, 병 걸린 오리를 식용으로 판매

출처 : 상하이 AFP

중국 유명 가금류 가공공장이 병에 걸린 오리를 식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펠라민 파동, 염색 만두, 화학물질을 첨가한 돼지고기에 이어 또다시 중국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허난성(河南省)에 본사를 둔 화잉농산은 도살 전 병으로 죽은 오리가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지난주 언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으며 관련자 4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은 화잉농산 직원들이 이들 오리를 사업가 추이진핑에게 넘겼으며 추이진핑은 이를 비밀리에 재가공했다고 전했다.

화잉농산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일로 회사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투자자와 소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오리를 넘겨받아 다시 판매한

추이진핑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난성 황촨현(潢川縣) 당국도 이번 사건을 공식 조사할 것이라 말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거듭해 식품안전 강화를 약속하고 있으나 식품 판매자들의 부도덕한 행동과 당국의 약한 처벌로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에는 유가공 업체들이 단백질 함량을 높이려고 유제품에 으로 화학 펠라민을 첨가해 이를 마신 유아 중 최소 6명이 사망하고 30만 명이 앓기도 했다.

필리핀, 대만산 닭·오리 수입금지.. “AI 사례 발견돼”

출처 : 아시아투데이

필리핀 정부가 대만 양계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가 발견돼 대만산 닭과 오리 등 가금류와 관련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4월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필리핀 농무부는 이날 대만 남서부 타이난 지역내 최소 한 곳의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AI감염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관리들은 이번 조치로 대만에서 생산되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와 관련제품, 야생조류 등의 국내 반입이 곧바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